



한중, 그린뉴딜·포스트코로나 등 현안 협력 강화

기사입력 2020-06-24 15:54

환경부-중국 생태환경부 화상 국장회의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 참석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왼쪽·당시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귀징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과 중국이 그린뉴딜, 대기환경, 기후변화 등 양국 환경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생태환경부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4차 한-중 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귀징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양국은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대기 질 개선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응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그린뉴딜이 기후·환경적 도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그린뉴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확정된 2020년도 '청천계획'(한·중 대기협력사업)의 주요 사업별 진전 상황과 설립 2주년을 맞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업무계획도 점검했다.

먼저 4월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화상회의 당시 논의한 대기 질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오염 방지책 중 공업 보일러 배출 저감 정책과 드론을 이용한 추적 감시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중 대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연구단이 화상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한 결과와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착수회의에서 중국 산둥성과 텐진시를 중점 협력지역으로 확정된 결과도 공유한다.

또 오는 7월 상하이시와 광둥성을 대상으로 1대1 화상 기업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과 병행해 청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공동행동 5개년(2020~2024) 계획이 차질없이 채택되도록 협력한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등 양국 공통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후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등 양국의 새로운 환경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1001>
